

시론



이윤배

조선대 명예교수

초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노인연령 상향 조정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등장했다. 100세 시대를 살아야 하는 현실 앞에 지극히 당연하고 필요한 화두인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노인연령 상향 조정 문제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조금하게 서둘러 결정할 사안은 아닌 듯싶다. 대한민국은 2018년 8월 말, 고령 사회에 진입했다. 만 65세 노인 인구 가 전체 인구의 14.2%를 차지, 고령사회가 된 것이다. 2000년 7월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후, 세계적으로 최단기간인 18년 만에 이루어진 일이다. 그리고 2025년이면 인구 10명 중 2명이 노인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된다. 이 같은 급속한 고령화는 기대 수명의 연장과 출산을 하락에 기인한다. 그런데 인구 구조가 급격히 고령화된다는 것은 인구 절벽의 시작과

노인연령 ‘상향 조정’의 딜레마

함께 노동력과 생산성 감소를 의미해 경제 성장도 덩달아 위축된다. 또한, 노인 인구 증가는 사회 보험 같은 지출을 늘려 국가 재정이 타격을 받게 되고, 복지기금 충당을 위해 다른 사회 구성원들이 세금을 더 내야 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일본의 장기 불황, 잃어버린 20년은 초고령사회로 인한 인구 구조의 변화 때문이라는 지적처럼, 저출산, 초고령화 사회의 도래는 국가 존망과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특히 우리나라도 일본의 전철을 밟지나 않을지 우려스럽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4년 노인 생활 실태 및 복지 욕구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78.3%가 노인연령 기준은 70세 이상이어야 한다고 응답했고, 75세 이상이어야 한다는 응답도 31.6%나 됐다. 그러나 대다수의 선진국은 여전히 노인 기준연령을 65세로 정하고 있고, 67세인 나라는 호주,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정도가 있을 뿐이다. 70세를 기준으로 삼고 있는 나라는 아직 없다. 현재 노인연령을 70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찬성의견과 65세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반

대 의견이 팽팽히 맞서 있다. 찬성론자들은 100세 시대라는 말이 보편화하고 있는 오늘날, 사회구조의 변화와 함께 구체적인 논의가 시작되는 것은 당연하다는 논리다. 반면, 반대론자들은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4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3%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 그런데 노인 기준연령을 높이면 현재 노인 복지 혜택을 받는 대상이 바뀌고 이는 곧 노인 복지 축소로 이어져 노인들의 삶은 더욱 팍팍해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평균 은퇴 연령이 53세에 불과하다. 국민연금 개시연령 61세 사이에 8년이란 소득 절벽기는 물론 기초연금 수급 개시연령까지 13년의 시차가 생겨 가뜩이나 어려운 장년층까지 궁지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노인 기준연령을 상향 조정하기 전에 ‘정년 연장’은 물론 ‘노인 일자리’를 늘리는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 그런데 청년 일자리도 턱없이 부족한 지금, 60대 이후 가질 수 있는 일자리 대부분이 비정규직이거나, 단순노무직이다. 여차피 양질의 일자리를 가질 수 없

는 경제 환경에서 사전 대책 없이 노인 기준연령만 상향 조정해봐야 연금 받는 시기만 늦춰 정부 불신과 함께 국민적 저항만 가져올 뿐이다. 따라서 노인연령 기준의 상향 조정을 위해서는 노인의 삶에 대한 가치 존중, 다양한 주체와의 협력과 연대가 먼저 필요하다. 그런데 과거 MB와 박근혜 정부에서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쏟아부은 돈은 110조 원이 훨씬 넘는다. 그러나 투자 대비, 성과는 말 그대로 속 빈 강정이었다. 일회성 생색내기 정책으로 일관한 당연한 결과다.

현 정부는 국민 혈세만 낭비하는 사탕발림의 대중융합주의 정책이 아닌, 청년은 물론 노인 등 이해 당사자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보다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은 저출산·고령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 확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으로 GDP의 1%를 쓰고 있을 뿐이다. 반면 영국, 프랑스 등 유럽 선진국들은 우리나라의 4배인 GDP의 4%를 예산으로 쓰고 있다.

현장칼럼



박성수

광주전남연구원장

참으로 어려운 여건에서도 세계적인 메가 스포츠대회를 개최하고 있는 빛고을은 푸른 물결이 넘실대는 축제의 장이 되어 가고 있다. 사상 가장 많은 194개의 국가가 참가한 이번 대회는 우리 고장 광주를 세계적인 스포츠 도시로 우뚝 세게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만큼 광주시를 중심으로 전시민이 합심해 노력하고 있다. 필자는 지난 12일부터 진행 중인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감히 절반의 성공이라고 말하고 싶다. 왜냐하면 초창기 대회유치부터 순탄치 않았으며, 그 당시 정부로부터 외면당한 나머지 재정적으로 힘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굳건히 씩씩하게 대회를 치르고 있는 모습을 보면 서 긍지를 느꼈기 때문이다.

광주세계수영대회, 남은 절반의 성공을 위하여

역대 한국에서 열렸던 하계 동계 올림픽, 월드컵, 육상선수권 등, 메가 스포츠대회와 비교해 보았을 때, 형편없이 뒤진 후원의 가뭄에 아랑곳하지 않고 지금까지 곳곳하게 의연한 자세로 꾸려내고 있는 모습을 보노라면 참으로 자랑스럽기조차 하다.

생각 같아서는 전 국민의 응원과 성원 속에서 연일 환호와 박수가 터져 나와야 함에도 그러지 못해 안타깝기는 하지만, 남은 기간 동안 우리 모두 함께 중지를 모아 남은 절반의 성공을 거두어 보자.

우선 이번 대회의 하든 챔피언으로 불리는 2천793명의 자원봉사자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내고 싶다. 불평 한마디 없이 무더위에 땀 흘리며 서서 바 소임을 다하고 있음을 보니 눈물겹게 고맙다. 통역, 주차 관리, 의료, 경기보조, 시상, 의료, 미디어 보도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8시간씩이나 봉사하는 이들은 자부심으로 똘똘 뭉쳐 있다. 일당 2만원도 채 안 되는 수당을 받고 하루 종일 시달리면서도 묵묵히 지원하는 이들 모습이 참으로 대견스럽

다. 시종일관 웃음으로 안내하는 이들은 단연코 이번 대회의 금메달급이다.

많은 선수단을 돌보는 서포터즈들의 역할 또한 대단하다. 각 나라마다 입국상황이 다르고 오자마자 낯선 환경에서 적응하느라 힘든 선수단들에게 따뜻한 친절로 대하는 이들은 그야말로 기부천사이다. 특히 인기국가도 아닌 나라, 이를테면 아프리카 탄자니아, 레소토 등 이름조차 생소한 나라들의 선수들을 지원하는 봉사자들을 보노라면 한없이 칭찬해주고 싶다.

더러는 등성등성 비어 있는 관중석이 마음 아프게 하지만 이제 16개 시도에서 대규모 참관단이 번갈아가며 온다니 경기장이 꽉 차겠다. 꽃잎이 전통을 이렇게 살려 주나 싶어 한없이 기쁘다.

들자니 우리 빛고을은 예향인 만큼 전통문화 예술 공연이나 전시를 보고 외국선수들이 매력에 푹 빠져 원더풀 광주를 외치곤 한다. 미향인 만큼 저녁에는 여기 저기 전통시장에 들러 광주의 맛있는 음식에 매

료되는 선수들을 많이 본단다. 그리고 의향인 만큼 더러는 안내를 받아 5·18 국립묘지를 참배, 광주정신을 배우기도 한다는 고무적인 이야기도 들었다.

우리의 간절한 바람에도 북한선수단이 오지는 못했지만, 통일에 대한 염원은 절실하다. 5·18민주광장에서 조선대 수영장까지 2.5km를 인강 피로 이음으로써 한반도 통일을 위한 광주 평화 손잡기를 펼쳤다고 한다. 쉽게 생각할 수 없는 이런 행사는 오로지 광주니까 가능했지 않았을까.

이번 대회에는 아쉽게도 박태환 선수와 같은 스타는 없지만 유망주 김서영 선수와 같은 꿈나무들이 선전할 것으로 예상되어 든든하다. 또한 쏜약을 비롯한 드레슬, 레데기 등 세계적인 선수들이 활약을 펼치게 되면 수영의 꽃인 경영대회로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으리라고 기대해 본다.

이제 남은 기간 얼마 남지 않았다. 우리 모두 성숙된 민주시민으로 발 벗고 나서자. 그래서 남은 절반의 성공을 꼭 기약해 보자.

社說

세계수영대회 중반 흥행몰이에 힘 모으자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어느 새 중반을 넘어서 종반으로 향하고 있다. 개막 초기 약간의 혼란과 불미스러운 일이 있기도 했으나 점차 안정을 찾으며 관중이 몰려드는 등 분위기가 후끈 달아 오르고 있다. 특히 ‘수영의 꽃’인 경영경기가 시작된 지난 21일 남부대 시립국제수영장은 많은 관람객이 자리를 차지했다. 세계적인 스타를 만나기 위한 외국인 관람객이 많았고, 경기장 입구에는 관람객들이 입장하기 위해 줄지어 서 기다리는 진풍경이 연출되기도 했다. 이어 어제(22일)부터 사전 입장권 매진을 기록했던 하이다이빙도 열려 관객몰이가 본격 시작되고 있다.

하이다이빙은 10m, 3m에서 뛰는 일반 다이빙과 달리 남자 27m, 여자 20m의 높이에서 하늘을 날아 수조에 떨어지는 경기로, 3초 동안 펼치는 화려한 예술을 만끽할 수 있다. 한국에서 국제수영연맹이 주관하는 하이다이빙이 열리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국내에는 출전하는 선수가 없어서 하이다이빙 인기는 대단하다. 엄청난 높이에서 낙하하기 때문에 충분한 체공 시간을 이용해 더 화려한 연기를

펼칠 수 있다. 광주의 어머니산이자 빼어난 경관을 자랑하는 무등산국립공원이 한눈에 들어오는 조선타에 경기장을 설치했다. 플랫폼 위에 서면 무등산이 한눈에 들어온다. 흥행몰이에는 청와대 참모진까지 직접 발 벗고 나서 힘을 보태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참모들에게 “시간이 있으면 분은 현장에서 응원했으면 좋겠다. 청와대부터 동참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한다”는 취지로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을 비롯한 일부 참모들은 22일 오후 광주 남부대 시립국제수영장을 직접 찾아 오후 8시에 시작하는 여자 100m 접영·평영 등 단거리 종목 응원전에 합류했다. 조국 민정수석과 김연명 사회수석 등도 해당 수석실 참모들을 이끌고 이번 주 중에 광주로 삼삼오오 내려와 직접 응원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번 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성공을 위해서는 시민 모두가 대회의 주인이자 자원봉사자라는 생각으로 참여하는 게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대회 기간 중 선수와 방관객들이 아름다운 광주의 훈훈한 인정을 느끼도록 정성을 다해야겠다.

태풍 ‘다나스’가 남긴 상흔 복구 서둘러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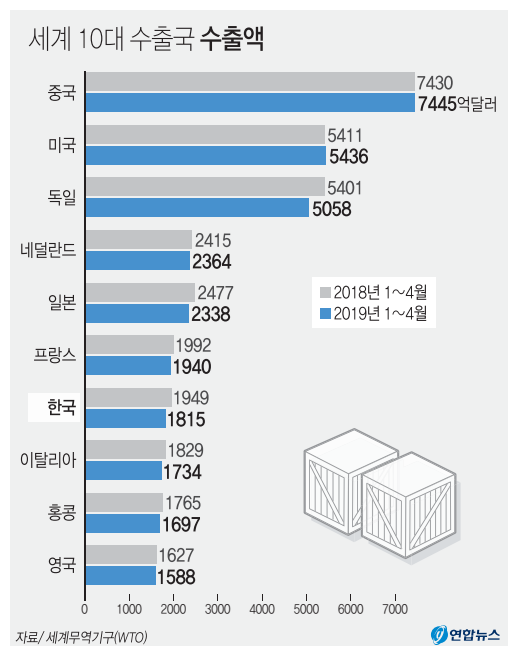
제5호 태풍 ‘다나스(DANAS)’가 휩쓸고 간 광주·전남지역 곳곳에는 강풍을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리면서 깊은 생채기가 남았다. 농경지와 도로가 빗물에 잠기고 건축물 담장이 무너지는가 하면, 불어난 계곡물에 피서객이 고립되는 사고도 발생했다. 또한 곳곳에서 농경지 침수·시설물 붕괴 등 피해가 잇따랐다. 광주와 전남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19일부터 내린 장맛비와 다나스의 영향으로 여수와 강진·해남·고흥지역의 농경지 928ha가 빗물에 잠기는 피해를 입었으며 강진의 한 도로 토사유출, 계곡 고립 50대 여성 등 8명이 구조됐다. 구례군 광의면 한 펜션에 투숙 중이던 A(57·여)씨 등 8명이 불어난 계곡을 건널 수 없다며 도움을 요청해 소방당국이 구조했다. 많은 양의 비가 내리면서 건물 외벽 구조물 낙하 등 피해도 잇따랐다. 지난 20일 오전 9시 46분께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 상가 외벽 구조물이 떨어져 소방당국이 긴급 안전조치 했다. 같은날 오전 4시47분께 광주 동구 지산동 재

개발지역에 설치된 가림막이 무너져 소방당국이 복구 작업을 벌였다. 오전 3시께에는 여수시 웅천 요트마리나 육상계류장에 세워져 있던 요트 4척이 강한 바람에 넘어져 파손됐다. 또 나주시 다도면의 국가민속문화재 제151호 나주 계은 고택 시설물 일부가 파손되기도 했다. 앞서 지난 19일 오후 11시43분께 완도항에서는 태풍에 대비해 4.99t급 선박을 고박하려던 선장 B(64)씨가 밧줄 등에 맞아 다리를 크게 다쳐 치료를 받고 있다. 같은날 오후 9시51분께 여수 돌산읍 군내리 한 도로에 돌이 굴러 떨어져 행정당국이 복구작업을 벌였다. 같은날 오후 7시35분께 여수 소라면 복산리 해안도로에 토사가 흘러내렸다. 비슷한 시간대 여수 화양면 안포리 편도 1차선 도로에도 토사가 쏟아졌다. 19일 완도 지역 109가구는 수시간 동안 전기 공급이 끊겨 불편을 겪었다. 많은 양의 비가 내리면서 건물 외벽 구조물 낙하 등 피해도 잇따랐다. 지난 20일 오전 9시 46분께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 상가 외벽 구조물이 떨어져 소방당국이 긴급 안전조치 했다. 같은날 오전 4시47분께 광주 동구 지산동 재

그래픽 뉴스

올들어 10대 수출대국 美·中 빼고 수출 ↓…韓 감소세 1위

올해 들어 4월까지 전 세계 10대 수출대국 중 1·2위인 중국과 미국을 제외한 8개국에서 수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수출 감소세는 10대 수출국 중 가장 가팔랐다. 미·중 무역전쟁 여파에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까지 겹치면서 세계 무역에 빨간불이 켜졌다. 22일 세계무역기구(WTO)에 따르면 올해 1~4월 10대 수출국 중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상품 수출액이 증가한 국가는 중국과 미국 등 2개국뿐이었다. 나머지 8개국은 모두 감소했다. 세계 최대 수출국인 중국의 1~4월 수출액은 7천445억1천1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2% 늘었다. 2위 미국의 수출액은 5천436억2천7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5% 증가했다. 다만, 5월까지 수출액을 보면 미국의 수출액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감소세로 돌아선다. 10대 수출국 중 1~4월 수출 감소도가 가장 가파른 것은 세계 7위 수출국인 한국이었다. 1천814억8천500만 달러에 그쳐 1년 전보다 6.9% 줄었다. 이어 세계 3위 수출국 독일(-6.4%)이 뒤를 이었다. 이달 초부터 우리나라에 대해 수출규제를 가하고 있는 일본은 1~4월 수출액이 2천338억3천300만달러로 5.6% 줄어 10대 수출국 중 3번째로 감소세가 가팔랐다. 이로 인해 10대 수출국 중 일본의 순위는 5위로 밀려났다. 1년 전 5위였던 네덜란드는 수출액이 2천363억7천100만 달러로 2.1% 줄어드는 데 그치면서 4위로 올라섰다. 우리나라에 이어 세계 8위 수출국인 이탈리아(-5.2%), 9위인 홍콩(-3.9%), 10위인 영국(-2.4%)도 모두 감소세가 가파른 편이었다. /연합뉴스



광주 세계수영대회 맞는 미용인의 life style 개선

의 한계를 초월해 빛고을 광주를 세계만방에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이번 대회는 자유형, 배영, 평영, 접영 등의 영법으로 순위를 결정하는 경영, 다이빙, 남성과 여성이 각각 27m와 20m 플랫폼에서 펼치는 하이다이빙, 수영과 무용이 아름다운 음악선율과 조화를 이뤄내는 예술 수영인 아티스트 수영, 강이나 바다와 같은 야외의 자연환경 속에서 치러지는 오픈워터수영, 체력적 한계를 극복하는 수중 구기종목인 수구 등 총 6종목으로 구성돼 진행된다. 수영은 민력력을 강화하고 신체의 균형을 조절하며 아름다운 바디라인(body line) 형성에 도움을 주는 스포츠로서 물의 부력으로 인한 저충격운동이기 때문에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퇴행성 관절염의 통증 완화에도 이롭게 작용한다. 또한 흙미를 유발하고 근력을 증진시키는 유산소운동이므로 혈압이나 혈

내 콜레스테롤(cholesterol) 수치를 감소시키며, 뇌졸중이나 심장병과 같은 심혈관 질환의 유발 가능성 감소 효과도 있다. 여기에 세로토닌(seotonin) 방출로 인한 스트레스의 해소, 긴장과 우울증 완화는 덤으로 수영이 지닌 이로움 효능 중 하나이다. 다년간 미용업에 종사한 필자의 직업 상흔(傷痕)은 무릎 통증과 추간판 탈출증이다. 미(美)의 창출과 고객 만족을 위하여 미용인들은 강도 높은 육체노동과 감정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헤어디자이너는 10시간 전후의 장시간에 걸쳐 서서 시술하는 근무환경으로 인해 허리, 무릎, 발목 등에 무리가 동반되는 육체적 고충에 직면해 있다. 피부미용인은 탄력 있고 매끈한 피부관리를 위한 고객 응대과정에서 팔과 어깨의 통증이 유발되며, 네일미용인은 하리와 호흡기계의 통증과 안구질환에 직면하고 있다. 근자(近者) 들

어 헤어살롱, 피부미용실, 네일숍에서 는 예약제의 시행이 저변에 확산되고 있어 미용인들의 근무조건은 상당 부분 개선되었지만 타 직종과 견주어 육체노동의 고충은 여전히 남아 있다.

따라서 최근 언론매체에서 핫 이슈인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관심 밖으로 치부한다거나 공사다망(公私多忙)을 핑계 삼아 수영을 포함한 개인 운동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이다. 체력관리가 어느 직종보다 우선시 되며 고객 응대에서 발생하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해야 하는 미용인들에게 30분당 300Cal 내외가 소모되는 수영은 자기관리의 방안으로 매우 유용한 운동이다. 그러므로 최소 주 2~3일 정도 수영의 생활화를 정착시킨다면 수준 높은 웰빙 문화와 에너지 넘치는 역동적인 삶이 가능한 미용인으로 거듭날 것이라 갈파(赜破)한다.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하고싶은 이야기, 사진 등을 보내주세요.